

조망의 확대와 평가의 보존

이수원 · 박광엽

한양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조망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서 조망이 확대되면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구하였다. 실험 1에서 개인이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조망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태도가 중립적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조망이 확대되어 태도의 대립을 일으키는 두가지 조망을 모두 갖게 되면 평가의 보존, 즉 대립되는 태도대상들을 평가차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게되어 태도가 중립적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험 2에서는 일정한 조망이 없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인 사람과 대립되는 두가지 조망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인 사람의 차이가 드러났다. 전자는 주어진 태도대상들을 기술차원에서 변별하지 못하였지만 후자는 이들을 변별할 수 있었다. 즉, 조망이 확대되어 대립되는 두가지 조망을 모두 갖게되면 주어진 태도대상들을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지 않고, 그 대신 기술차원에서 변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조망의 확대가 개인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태도의 대립은 태도대상에 대한 조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동안 태도의 대립이 태도대상을 판단하는 가치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야기된다는 근거는 다각적으로 밝혀졌다. 이수원과 박영석(1988)은 학생의 복장에 대한 태도에서 교복지지자와 사복지지자가 서로 다른 가치에 입각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교복 지지자는 '질서' 가치에 입각하여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사복지지자는 '개성' 가치에 입각하여 태도를 형성하였다. Tetlock(1986)은 국가정책에 대해서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평등(사회복지의 확대) 가치에 입각 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보

수주의자는 개인의 권리(사유재산의 보호) 가치에 입각 해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Katz와 Hass(1988)는 흑인에 대한 태도에서 호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흑인을 대해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반면에 비호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들을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판단한 사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 때 태도가 대립되는 원인은 주어진 태도대상을 서로 다른 가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같은 가치는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조망이 된다. 이 사실은 주어진 가치에 입각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개인의 '입장'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의 복장에 대한 태도에

서 교복 지지자는 대개 선생이다. 이들은 학생을 통솔하고 기강을 잡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서'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사복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개 학생이다. 이들은 신분에서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 멋과 개성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개성'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선생과 학생은 모두 그들이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각자 자기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치를 판단의 준거로 삼아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는 그가 처해 있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가치는 태도대상을 판단하는 개인의 조망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망이 확대되어 태도 간의 대립을 유발하는 두가지 가치를 한 개인이 동시에 갖고 태도대상을 판단하게 되면 그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 개인의 태도, 즉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 감정은 그가 두가지 가치 중 어느 한쪽의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은 주어진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어진 대상을 판단하는 가치 그 자체가 평가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의 학생의 복장에 대한 태도에서 교복지지자의 준거인 절서가치는 그 양극이 절서없다 — 절서있다 차원으로 구성되며, 사복지지자의 준거인 개성가치는 개성없다 — 개성있다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절서없다나 개성없다는 평가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것이며 절서있다는 개성 있다는 긍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절서없다 — 절서있다 차원이나 개성없다 — 개성있다 차원은 모두 나쁘다 — 좋다는 평가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평가차원에서 주어진 태도대상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판단도 평가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대상에 대한 평가적 감정, 즉 태도인 것이다.

그런데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이 서로 대립되는 두가지 가치, 예컨대 절서가치와 개성가치를 동시에 갖게되면 그 때 주어진 대상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의 Katz와 Hass (1988)의 연구에서 이같은 개인은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양가감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감정과 비호의적 감정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태도도 그때 그때 바뀐다고 보았다.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연구에서도 조망이 확대되면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대상에 대한 태도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상황과 독립해서 태도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또한 조망이 확대되면 왜 태도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이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 가치를 모두 갖게되면 태도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려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개인이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 가치를 모두 갖고 주어진 태도대상을 판단하게 되면 태도는 중립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학생의 복장에서 교복은 절서가치에서 보게되면 좋지만 개성가치에서 보게되면 나쁘다. 마찬가지로 사복도 절서가치에서 보게되면 나쁘지만 개성가치에서 보게되면 좋다. 따라서 절서와 개성의 두가지 가치에서 교복과 사복을 판단하게 되면 두 태도대상중에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것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교복과 사복이 평가차원에서는 더 이상 변별되지 않는 것이다. 평가차원에서의 의미로만 본다면 교복과 사복은 동일한 것이다. Piaget(1954)의 말을 빌리면 평가에서의 '보존'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보존이란 말을 쓴 것은 개인이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을 한쪽 조망, 예컨대 절서가치에서만 보게되면, 교복은 좋은 것이며 사복은 나쁜 것이라고 평가차원에서 두 대상을 달리 보게되는 반면에, 양쪽 조망, 예컨대 절서가치와 개성 가치를 동시에 갖고 보게되면 교복과 사복이 평가차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서 그렇게 볼었다. 교복과 사복이 평가차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교복과 사복에 대한 평가가 조망의 확대를 통해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Piaget의 보존개념에 대한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의 보존 실험에서 보존개념이 형성된 아동은 양을 높이에 의해서만 규정하지 않고 밀변에 의해서도 규정한다. 즉 양을 높이와 밀변의 두가지 조망에서 볼 수 있다. 이 때 높이가 높고 밀변이 좁은 그릇의 물과 밀변이 넓고 높이가 낮은 그릇의 물의 양을 동일하게 보게 된다. 따라서 태도에서 한 개인이 두가지 조망을 동시에 가졌을 때 대립되는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은 양의 보존에서 나타나는 기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양의 보존에서는 일단 보존개념이 형성되면 양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다. 그리하여 이제 그릇의 모양에 구속받지 않고 양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태도에서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보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 것인가? 교복과 사복이 평가적 의미에서 동일하다면,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구별 되는 것인가? 이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조망이 되는 가치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평가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의미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수원(1988)은 학생의 복장과 관련된 4가지 태도적 가치, 즉 질서있다, 질서없다, 개성있다, 개성없다를 가지고 이들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질서있다·개성있다)과 부정적인 것(질서없다·개성없다)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또한 기술적 의미차원에서 제복적인 것(질서있다·개성없다)과 비제복적인 것(개성있다 질서없다)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이들 가치들은 평가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이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갖게되면 교복과 사복을 평가 차원에서 변별하지 않고, 기술차원에서 변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은 한 개인이 질서가치와 개성가치를 동시에 갖고 교복과 사복을 판단하게 되면, 교복은 질서는 있지만 개성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며, 사복은 질서는 없지만 개성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같은 판단에서는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교복과 사복이 평가차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게된다. 교복에는 긍정적인 면(질서있다)과 부정적인 면(개성없다)이 있으며, 사복에도 긍정적인 면(개성있다)과 부정적인 면(질서없다)이 있다. 따라서 평가차원에서는 교복과 사복을 변별할 수 없다. 교복과 사복이 평가적 의미로만 볼 때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가치들의 기술적 의미를 고려하게 되면 교복과 사복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교복은 제복적인 특성(질서있다·개성없다)을 가진 것이며, 사복은 비제복적인 특성(질서없다·개성있다)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질서가치와 개성가치를 그것들의 평가적 의미를 무시하고 기술적 의미에서 보게되면 교복과 사복을 나쁘다 — 좋다는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지 못하지만, 비제복적이다 — 제복적이다의 기술차원에서는 변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개인의 조망이 되는 가치들에는 평가적 의미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의미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이 상반되는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 주어진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 보지 않고 그 대신 기술차원이 새로이 생성되어 이 차원에서 태도대상을 변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술차원의 생성은 평가차원에서 '보존'이 일어난 후에 오는 것이다. 개인의 조망이 축소되어 태도대상을 하나의 가치에만 의존하여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은 평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판단의 준거가 되는 가치차원 그 자체가 평가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질서가치 차원, 즉 질서없다 — 질서있다 차원은 그 양극이 모두 질서가치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다른 점은 전자는 부정적인 가치이며 후자는 긍정적인 가치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단일가치차원에서 그 양극의 의미상의 차이는 평가적 의미에서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을 바라보는 조망자체가 이렇게 평가차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 대상들을 평가차원에서 대립되게 보는 것이다.

그런데 조망이 확대되어 개인이 대립되는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갖고 주어진 태도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평가에서의 보존이 나타나게 된다. 즉,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는 변별을 할 수 없게 된다. 교복과 사복은 모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적 의미에서만 본다면 교복과 사복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 양자가 동일한 것인가? 그럴수는 없는 것이다. 평가에서의 보존이 일어나 주어진 대상을 평가적으로 보지 않게되면, 이제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인 면이 드러나게 된다. 주어진 대상을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평가적으로 보지 않게되면 이제 그 대상의 기술적인 특성 즉, 재복적인가 또는 비재복적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개인이 태도대상을 판단할 때 조망이 되는 가치들의 의미속에는 평가적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르게 오게된다. 질서있다는 개성있다는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들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질서있다는 개성있다는 그것들이 지칭하는 가치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전자는 재복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비재복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가치의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서 기술적 의미로 바뀔때 따라 태도대상을 판단하는 개인의 조망차원이 나쁘다 — 좋다(질서없다 — 질서있다 또는 개성없다 — 개성있다)의 평가차원에서, 비재복적이다 — 재복적이다(질서있다·개성없다 — 개성있다·질서없다)의 기술차원으로 바뀔으로써 주어진 태도대상을 기술차원에서 변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

변별하는 것과 기술차원에서 변별하는 것은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전자에서는 주어진 대상에 감정적으로 반응 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인지적으로 반응한다. 전자에서 대립되는 태도대상, 예컨대 교복과 사복이 나쁘다 — 좋다의 평가차원에서 대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이들이 비재복적이다 — 재복적이다의 기술차원에서 대립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중립적 상태에서 인지적으로만 반응한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태도는 개인의 조망이 평가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태도에 대한 전통적 정의에서 태도는 주어진 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일컫는다. 이렇게 볼 때 태도는 개인의 조망이 한 쪽 가치만으로 이루어져 평가차원으로 구성되었을 때 나타나게 된다. 조망의 확대가 일어나 양쪽의 가치를 다 갖게 되면 평가차원이 기술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때 태도적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태도가 중립이 되는 것이다. 이 때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주어진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때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는 변별할 수 없지만 기술차원에서는 변별할 수 있다. 따라서 교복은 재복적인 것이며 사복은 비재복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재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교복을 택할 수 있으며, 비재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복을 택할 수 있다. 즉 질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교복을 선호하고, 개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사복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교복과 사복을 비재복적이다 — 재복적이다의 기술차원에서 변별할 수 있게되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태도대상에 대한 선호를 달리 하게 된다. 그리하여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조망이 평가차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태도대상에 대한 그의 반응이 그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이 대립되는 두개의 가치를 다함께 갖게되면 평가에서의 보존이 일어나게 되어 주어진

대상에 대한 태도는 증렵이 되고, 그 대신 기술차원이 나타나 대상을 이 차원에서 변별하게 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개인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생각, 즉 조망의 확대가 평가에서의 보존을 가져와 기술차원을 생성하게 됨으로써 태도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을 두가지 실험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실험 1

이 실험에서는 개인의 조망이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앞에서 조망이 확대되면 평가에서의 보존이 나타나 태도가 증렵적이 된다고 예언하였다. 또한 조망이 확대되면 기술차원이 생성되어 태도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이 두가지 예언을 검토하였다.

방법

피험자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모두 274명으로서 중학교 2학년 95명, 고등학교 2학년 86명, 대학교 1학년 9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남자였는데 대학생 피험자 중에는 여학생이 30명 있었다. 이들 중 응답에 누락이 있는 4명의 피험자를 제외하여 27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망의 측정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에 대한 피험자들의 조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기법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분 척도를 제작하였다. 하나는 질서가치를 대표하는 질서있다 — 질서없다 척도이며, 다른 하나는 개성가치를 대표하는 개성있다 — 개성없다 척도이다. 이 두 척도에서 교복과 사복

을 각각 따로 평정시켰다. 평정은 -3에서 +3까지의 7점척도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의 반응은 그림1에서처럼 4가지 변별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그림에서 y 값은 피험자들의 질서가치 차원변별값을 나타내며, x 값은 개성가치 차원변별값을 나타낸다. 이 두 변별값은 교복과 사복을 주어진 가치차원에서 얼마나 변별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변별값이 클수록 그 가치차원에 입각해서 교복과 사복을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두 지표 y' 는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x' 는 기술차원에서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두 변별값은 교복과 사복을 나쁘다 — 좋다는 감정차원에서 변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재복적이다 — 재복적이다의 인지차원에서 변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된다.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의 계산과 해석은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태도의 측정

피험자들의 조망을 측정한 후 이어서 그들의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교복과 사복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사복을 극히 찬성 한다'(-5)에서 '교복을 극히 찬성한다'(+5)까지의 11점 척도에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선정된 상황은 질서를 추구하는 상황 3가지와 개성을 추구하는 상황 3가지의 모두 6가지였다. 질서추구상황은 '통솔이 문제될 때' '학생신문이 문제될 때' '소속의식이 문제될 때'였으며, 개성추구상황은 '자율성이 문제될 때' '개성이 문제될 때' '멋이 문제될 때'였다. 이들 6가지 상황에서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를 각각 따로 측정하였다. 태도의 측정은 '다음에 제시된 여러상황에서 교복(사복)이 얼마나 나쁘다고 혹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응답은 '매우나쁘다' (1)에서 '매우좋다' (7)의 7점척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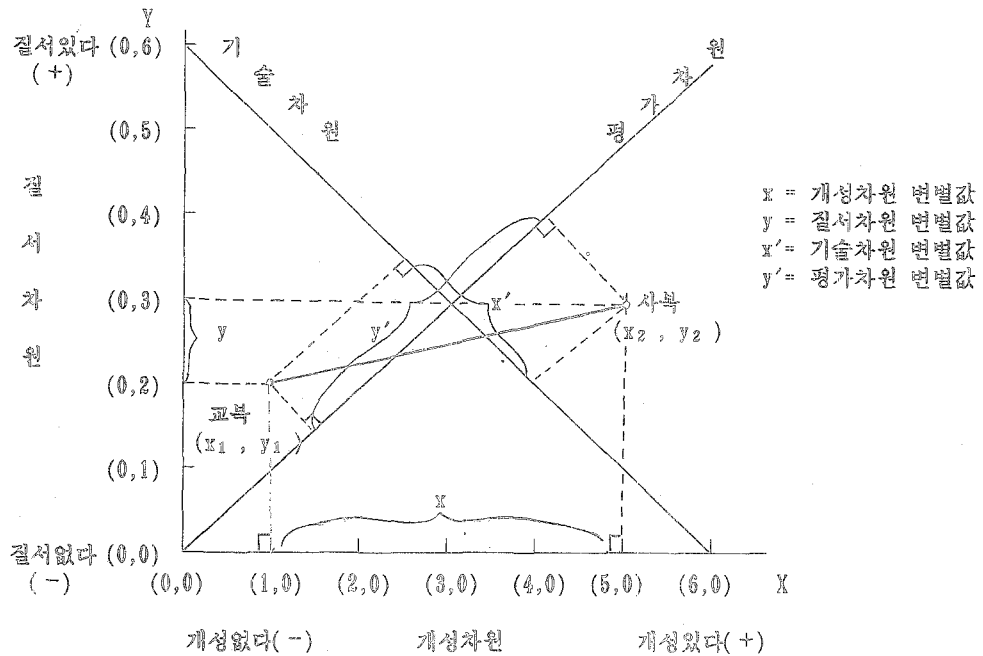


그림 1.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의 준거차원

평정시켰다.

결과 및 논의

절 차

피험자들은 집단으로 실험에 참가했다. 이 실험에서 제작한 질문지에는 원래 여기서 분석한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연구에서 전체 질문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이 실험에서 제시한 질문지의 제시 순서는 먼저 피험자들의 조망을 조사한 후 이어서 그들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서의 질문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실험자는 실험에 대한 개요와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피험자들의 개인별 진행으로 전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 피험자들을 그들의 조망수준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를 위해서 조망측정에서 얻어진 질서차원 변별값(y)과 개성차원 변별값(x)이 이용되었다.

전체 피험자들을 각 가치차원에서 변별값의 크기에 따라 나열한 후 각 변별값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피험자들을 상·하 두 집단으로 각각 나누었다. 여기서 질서차원 변별값(y)에서의 중앙치는 2.33이었으며, 개성차원 변별값(x)에서의 중앙치는 3.33이었다. 그리하여 전체 피험자들을 y 값도 높고 x 값도 높은 집단(HH), y 값은 높고 x 값은 낮은 집단(HL), y 값은 낮고 x 값은 높은 집단(LH), 그리고 y 값도 낮고 x 값도 낮은 집단(LL)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LL 집단 즉, 질서차원과 개성차원 변별값

이 모두 낮은 집단은 교복과 사복을 양쪽 가치차원에서 모두 변별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피험자들은 교복과 사복에 대하여 어떤 조망도 갖고 있지 않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하여 뚜렷한 조망이 없는 집단이다. LH 집단 즉, 질서차원 변별값은 낮지만 개성차원 변별값이 높은 집단은 교복과 사복을 개성 차원에서만 변별하고 질서차원에서는 변별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피험자들은 교복과 사복을 한쪽 조망, 즉 개성가치에만 입각해서 판단하는 집단이다. HL 집단 즉, 질서차원 변별값은 높지만 개성차원 변별 값이 낮은 집단은 교복과 사복을 질서차원에서만 변별하고 개성차원에서는 변별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피험자들은 교복과 사복을 한쪽 조망, 즉 질서가치에만 입각해서 판단하는 집단이다. 한편 HH 집단, 즉 질서차원 변별값도 높고 개성차원 변별 값도 높은 집단은 교복과 사복을 양쪽 가치차원에서 모두 변별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피험자들은 양쪽의 조망을 동시에 갖고 교복과 사복을 바라보는 집단이다.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하여 조망이 확대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은 위의 4집단에서 사복을 극히 찬성한다(-5)에서 교복을 극히 찬성한다(+5)까지의 11점 척도에서 측정된 전반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0은 태도가 중립임을 나타내며 양극단으로 갈수록 태도가 극단적인 것이다.

표 1. 조망수준에 따른 태도(표준편차)

집 단	태 도
L L(n=51)	- 0.14(3.42)
L H(n=80)	- 2.83(3.03)
H L(n=74)	2.78(3.22)
H H(n=65)	0.11(3.85)

표 1에서 조망을 전혀 갖지 않았거나 양쪽 조망을 모두 가진 LL집단과 HH집단에서 태도가 중립적인 데 반하여, 한쪽 조망만을 가진 LH집단과 HL집단에서는 태도가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가치에 입각해서 태도대상을 변별하는 LH집단에서는 사복을 찬성하는 반면에, 질서가치에 입각해서 대상들을 변별하는 HL집단에서는 교복을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가치는 사복지지자의 조망이며, 질서가치는 교복지지자의 조망임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태도극단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의 태도점수들에 절대값을 주어 태도의 방향을 무시한 태도극단도를 산출하여 네 집단간의 태도 극단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하게 나왔다[$F(3,266)=4.91, p<.002$]. 집단간의 유의한 결과에 대해 5% 수준에서 Scheffe'의 개별 검증을 한 결과 LL집단과 HH집단간의 태도 극단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LH집단과 HL집단간의 태도 극단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오직 LL집단과 HH집단을 합치고 LH집단과 HL집단을 합쳐서 두 집단을 만들어 이들 간의 태도극단도의 차이를 내어 본 결과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왔다($t=-3.39, df=266, p<.001$). 따라서 LL와 HH 집단은 태도가 중립적인 반면에 LH와 HL 집단은 태도가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HH집단의 결과는 앞에서 조망이 확대되면 평가에서의 보존이 일어나 태도가 중립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LL 집단, 즉 뚜렷한 조망이 없는 집단에서도 태도가 중립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태도를 지닐려면 반드시 일정한 조망, 즉 특정가치에 입각해서 그 대상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망이 없거나 또는 대립되는 두 조망을 동시에 갖게 되면 그 때 태도적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LL집단처럼 일정한 조망이 없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인 경우와 HH집단처럼 대립되는 두 조망을 함께 갖고있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인 경우는 겉으로만 같지만 그 내면적 구조는 매우 다르다고

표 2. 질서와 개성상황에서의 태도차(표준편차)

집 단	태 도 대 상	
	교 복*	사 복**
L L(n=51)	2.05(1.24)	1.84(1.08)
L H(n=80)	2.94(1.15)	2.41(1.16)
H L(n=74)	1.97(1.24)	2.19(1.12)
H H(n=65)	3.32(1.28)	3.04(1.14)

* 질서상황 태도 - 개성상황 태도

** 개성상황 태도 - 질서상황 태도

보아야 한다. 이 사실은 집단별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분석한 표 2에서 잘 나타난다. 이 표에서 제시한 점수는 질서추구상황에서 얻어진 태도점수와 개성추구상황에서 얻어진 태도점수를 때서 상황에 따른 차이점수를 구한 것이다. 교복 대상에서의 점수는 질서상황점수에서 개성상황 점수를 뺀 점수이며, 사복대상에서의 점수는 개성상황점수에서 질서상황 점수를 뺀 점수이다. 표에서 보면 LL집단은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가장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HH집단은 태도가 상황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LH 집단이나 HL집단은 중간정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변량분석도 집단 별 주효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F(3,266)=18.61, p<.001$). 이것에 대한 집단별 개별 비교에서 LL집단과 HH집단의 점수차이가 유의하게 나왔다($t=5.08, df=114, p<.001$).

따라서 LL집단과 HH집단의 차이가 분명해 진다. 상황과 결부시키지 않은 전반적 태도에서 두 집단은 양쪽이 모두 중립적으로서 똑같다. 그러나 일단 상황이 주어지면 LL집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반면에 HH집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었다. 여기서 HH집단에서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뀐 것은 이 집단의 피험

자들은 조망의 확대를 통해서 기술차원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피험자들은 교복은 재복적인 특성을 가지며, 사복은 비재복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질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교복선호 태도를 보이며, 개성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사복 선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LL 집단의 피험자들은 기술차원이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 사실은 피험자들의 조망측정자료에서 얻어지는 평가차원 변별값과 기술차원 변별 값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림 1에서 평가차원 변별값은 질서가치(Y)와 개성가치(X)로 이루어진 좌표에서 원점을 지나가는 대각선에 교복(x_1, y_1)과 사복(x_2, y_2)의 두 좌표점은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y')이다. 그런데 이 대각선은 좌표점(0,0)에서 좌표점(6,6)을 잇는 선으로서, 결국 부정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두개의 가치(질서없다와 개성없다)와 긍정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두개의 가치(질서있다와 개성있다)를 잇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 두 태도 대상을 변별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을 나쁘다 — 좋다는 평가차원에서 대립되게 보는 것이다. 반면에 기술차원 변별값은 그림에서 좌표점(0,6)과 좌표점(6,0)을 잇는 대각선에 교복과 사복의 두 좌표점을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x')이다. 그런데 이 대각선은 재복의 특성을 대표하는 두 개의 가치(질서있다와 개성없다)와 비재복의 특성을 대표하는 두 개의 가치(개성있다와 질서없다)를 잇는 선이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 두 태도 대상을 변별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을 비재복적이다 — 재복적이다의 기술차원에서 대립되게 보는 것이다.

표3에서 평가차원 변별값은 LL집단과 HH 집단에서 적으며, LH집단과 HL집단에서 크게 나와 앞서 표 1의 전반적 태도측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집단간의 변별값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266)=132.88, p<.001$). 또한 LL와 HH집단을 합쳐고, LH와 HL집단을 합쳐서

표 3. 교복과 사복에 대한 평가차원 변별값과
기술차원 변별값(표준편차)

집 단	변 별 값	
	평 가 차 원	기 술 차 원
L L(n=51)	0.92(0.60)	1.76(1.05)
L H(n=80)	3.22(1.30)	3.72(1.11)
H L(n=74)	2.02(1.60)	3.41(1.25)
H H(n=65)	1.06(0.68)	5.78(0.92)

* 최저변별값(0) ~ 최고변별값(6.485)

이들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t = 11.25$, $df=266$, $p < .001$). 따라서 한 개인이 대립되는 두 조망을 모두 갖게 되면 (HH집단) 대립되는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더 이상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의 보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 결과에서도 거듭 입증되었다. 또한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일정한 조망을 갖고 바라 볼 때에만 나타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일정한 조망이 없는 LL집단에서는 태도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의 일정한 조망에서 태도대상을 바라본 LH집단이나 HL집단에서만 태도가 나타났다. 즉, 이들 집단에서만 교복과 사복을 나쁘다 — 좋다의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였다. 따라서 이들 결과들은 앞의 전반적 태도측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표 3의 기술차원 변별값에서는 LL집단에서 이 변별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LH집단과 HL집단이며, HH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266) = 56.77$, $p < .001$).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에 대해 5% 수준에서 Scheffe'의 개별검증을 한 결과 LL집단과 HH집단간, LH집단과 HH집단간, HL집단과 HH집단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HH집단에서는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을 기술차원에서 변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복과 사복을 LH집단이나 HL집단처럼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지 않고 기술차원에서 변별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LL집단과 HH집단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평가차원에서는 LL집단이나 HH집단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차원에서는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해서 어떤 조망을 갖고 있지 않은 LL집단에서는 교복과 사복이 기술차원에서 변별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립되는 두 조망을 모두 갖고 있는 HH집단에서는 교복과 사복이 기술차원에서 변별된다. 따라서 기술차원의 생성여부에서 LL집단과 HH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를 가졌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는 태도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개인이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두지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두가지 조망을 한 개인이 모두 함께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태도의 대립을 일으키는 두 조망을 모두 알게되어 어느 하나의 조망에 구속되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의 태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양가감정으로 나타난다. 앞의 표 2의 결과에서 HH집단은 LL집단과는 달리 태도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졌다.

그런데 표 3의 결과에서 평가차원 변별값이 동일한 자료에서 분석된 것이다. 따라서 이 표에서 얻어진 결과는 통계적인 조작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여기서 특히 평가차원 변별값은 개인의 태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대한 보충적 자료로서 이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차원 변별값은 이 실험에서 독립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기술차원 변별값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비

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그리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실험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2

앞의 실험 1에서 조망의 확대가 평가의 보존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실험 1에서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면 기술차원이 생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실험에서는 조망확대에 따라 기술차원이 생성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검증하려고 시도하였다.

방 법

피험자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모두 360 명으로서 이들은 도시거주자 220 명과 농촌거주자 140 명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은 연령층이 다양하여 18세부터 70세까지 골고루 분포되었다. 남녀구성도 반반씩 되었다. 이들 중 무응답자와 기재누락자가 39 명이 나와 321 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망의 측정

이 실험에서 선정한 태도주제는 교통경찰이 걸때 더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이었다. 구체적으로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가 교통 위반을 했을 때 적발하여 잡지를 때는 행위'(적발행위)와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모른척 눈감아 주는 행위'(묵과행위)였다. 이 두 상반되는 행위에 대한 피험자들의 조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6개의 의미분석척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척도는 강성수,

이수원 및 정진곤(1989)의 자료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인정 요인으로 묶이는 물인정하다 — 인정있다, 타산적이다 — 희생적이다, 냉혹하다 — 관대하다는 3척도와 공정요인으로 묶이는 불공정하다 — 공정하다, 무원칙이다 — 원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 합리적이다의 3척도를 뽑은 것이다. 이들 6가지 척도상에서 태도주제 적발행위와 묵과행위를 각각 평정토록하였다. 각 척도에서의 평정은 -3에서 +3까지의 7점척도상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의 반응은 실험 1의 그림1에서처럼 4가지 변별값을 산출하여 분석되었다. 인정차원의 값(Y)은 인정요인에 속하는 3척도의 평정값을 합쳐서 평균한 것이며, 공정차원의 값(X)도 공정요인에 속하는 3척도의 평정값을 평균한 것이다. 이렇게하여 그림 1에서처럼 인정차원 변별값(y), 공정차원 변별값(x), 평가차원 변별값(y') 및 기술차원 변별값(x')을 산출하였다. 각 값의 계산방법과 해석은 실험 1과 동일한 절차를 따랐다.

평가값과 기술값의 측정

태도주제 적발행위와 묵과행위에 대한 평가차원에서의 값과 기술차원에서의 값을 직접 구하기 위하여 두 가지 평정척도를 제작하였다. 먼저 평가차원에서의 평가값을 직접 구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나쁘다(-3)에서 좋다(+3)의 7점 평정척도에서 적발행위와 묵과행위를 각각 평정토록 하였다. 다음에 기술차원에서의 기술값을 직접 구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사적이다(-3)에서 공적이다(+3)의 7점 평정척도에서 적발행위와 묵과행위를 각각 평정토록 하였다. 여기서 태도주제 적발행위와 묵과행위에 대한 기술차원으로서 '사적이다 — 공적이다' 차원을 설정하게 된 것은 두 행위의 기술적 속성을 참작하여 그렇게 설정하였다. 기술차원은 주어진 태도 대상을 기술하는 가치들을 그것들의 기술적 의미에 따라 나열시킴으로써 성립되는 차원이다. 앞에서 적발행위를 기술하는 가치들은 공정하다, 원칙적이다, 합리적이다, 물인정하다, 타산적이다, 냉혹하다로 주어

졌으며, 목과행위를 기술하는 가치들은 인정있다, 희생적이다, 반대하다, 불공정하다, 비원칙적이다, 비합리적이다가 주어졌다. 여기서 적발행위를 기술하는 가치들은 그것들의 기술적 의미가 공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것들이라면, 목과행위를 기술하는 가치들은 그것들의 기술적 의미가 사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도주제 적발행위와 목과행위의 기술차원으로서 여기서는 사적이다 — 공적이다 차원을 설정하였다.

절 차

피험자들은 3~4명씩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실험에서 제작한 질문지에는 원래 여기서 분석한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 예컨대, 가치관 조사와 본배원칙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성수, 이수원 및 정진곤(1989)의 연구에서 전체 질문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이 실험에서 분석한 자료의 질문순서는 먼저 피험자들의 조망을 조사하고 나서 이어서 그들의 평가값과 기술값을 물어하였다. 각 항목에서의 질문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으며, 실험자는 조사에 대한 개요와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피험자들의 개인별 진행으로 전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가 걸렸다.

결과 및 논의

이 실험에서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피험자들을 그들의 조망수준에 따라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서 피험자들의 조망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들 가지고 그림 1에서와 같이 인정차원 변별값(y)과 공정차원 변별값(x)을 구하였다. 그림 1에서 x 측은 공정가치로 대체되었으며 y 측은 인정가치로 대체되었

다. 그리하여 각 가치차원에서 적발 행위와 목과행위에 대한 평정값을 가지고 그림 1에서와 같이 인정차원 변별값(y)과 공정차원 변별값(x)을 구하였다. 피험자들의 분류는 전체 피험자들을 각 가치차원에서 변별값의 크기에 따라 나열한 후 상·하 두 집단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여기서 인정차원 변별값(y)의 상·하 분류기준의 중앙치는 2.00이었으며, 공정차원 변별값(x)의 상·하 분류기준의 중앙치는 1.50이었다.

그리하여 두 가치차원에서의 분류기준에 따라 전체 피험자들을 y 값도 높고 x 값도 높은 집단(HH), y 값은 낮고 x 값은 높은 집단(LH), y 값은 높고 x 값은 낮은 집단(HL), y 값도 낮고 x 값도 낮은 집단(LL)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HH집단은 주어진 태도대상, 즉 적발행위와 목과행위를 두 가치차원에서 모두 변별하여 조망이 확대된 집단이며, LH 집단은 인정차원에서는 변별하지 못하고 공정차원에서는 변별하는 집단이며, HL집단은 인정차원에서는 변별하고 공정차원에서는 변별하지 못하는 집단이며, LL집단은 두 가치차원 모두에서 변별하지 못하는 집단이다.

표 4는 이상의 4집단에서 태도주제 적발행위와 목과행위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값을 제시한 것이다. 평가값의 측정은 나쁘다(-3)에서 좋다(+3)의 7점 척도에서 이루어 졌는데 제시의 편의상 표에서는 나쁘다(0)에서 좋다(6)로 환적하여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면 일정한 조망이 없는 LL집단과 조망이 확대된 HH집단은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정쪽의 조망을 갖고 있는 LH집단은 적발행위는 좋으며 목과행위는 나쁘다고 보며, 인정쪽의 조망을 갖고 있는 HL집단은 이와 반대로 적발행위는 나쁘며 목과행위는 좋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정가치는 목과행위를 지지하는 사람의 조망이며, 공정가치는 적발행위를 지지하는 사람의 조망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태도 대상과 집단의 2원변량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F(3,317)=81.87, p<.001$).

표 4. 조망수준별 태도대상에 대한 평가값(표준편차)

집 단	태 도 대 상	
	적 발 행 위	목 과 행 위
L L(n=72)	* 2.60(1.64)	1.92(1.52)
L H(n=88)	4.55(1.33)	0.97(1.21)
H L(n=89)	1.72(1.33)	3.75(1.53)
H H(n=72)	3.10(1.83)	2.44(1.92)

* 나쁘다(0) - 좋다(6) 척도에서의 평정값

또한 여기서도 실험 1에서와 같이 뚜렷한 조망이 없거나 양쪽 조망을 모두 갖게 되면 태도가 중립이 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적발행위와 목과행위에 대한 평가값간의 절대차이값을 내어 이 4집단의 절대 차이값의 평균값들에 대한 변량분석을 한 결과 $F(3,317)=16.95$ 로 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 5% 수준에서 Scheffe'의 개별검증을 한 결과 LL와 HH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LH와 LH 그리고 LL와 HL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LL와 HH집단에서는 적발행위와 목과행위의 두 행위가 나쁘다 — 좋다는 평가차원에서 변별이 안되는 반면에 LH와 HL집단에서는 변별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실험 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망이 없거나 조망이 확대되어 양쪽의 조망을 모두 갖게 되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 태도가 중립적이 된다는 것을 저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LL집단처럼 일정한 조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인 경우와 HH집단처럼 양쪽 조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이 되는 경우는 외형적으로는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실이 표 5에서 잘 드러난다. 표에서 보던 예상대로 모든 집단에서 적발행위

는 공적으로 보는 반면에 목과행위는 사적으로 보고 있다[$F(1,317)=522.35$, $p<.001$]. 그런데 여기서 집단과 태도대상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3,317)=29.26$, $p<.001$]. 즉 LL집단은 적발행위와 목과행위를 공사차원에서 가장 변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HH집단은 가장 변별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LL집단과 HH집단이 평가값에서는 둘다 중립으로서 같게 나타나지만 기술값에서는 서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LL집단은 기술차원이 생성되어 있지 못한 반면에 HH집단은 이차원이 생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망이 없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으로 나타나는 것과 조망이 확대되어 대립되는 조망들을 모두 갖게 되었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이 되는 것은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망이 확대되면 태도에서는 중립이 되지만 이와 함께 기술차원이 생성되는 것이다. 반면에 LL집단에서는 태도는 중립적이 되지만 이와 함께 기술차원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조망이 확대되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게 되면 대립되는 태도대상들을 어떤 차원에서 변별하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풀린다. 조망이 확대되어 태도대상들을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이들을 기술차원에서 변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두 대상 적발행위와 목과행위에서의 기술값간의 절대적 차이 점수를 내어 집단간에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유의하였다[$F(3,317)=26.89$, $p<.001$]. 이 차이에 대한 5% 수준에서 Scheffe' 개별검증을 한 결과 LL와 HH간에는 물론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HL와 HH, LH와 HH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HH집단에서는 주어진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 변별하기보다는 기술차원에서 변별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험자들의 조망측정 자료에서 함께 얻어지는 평가차원 변별값과 기술차원 변별값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표 6은 피험자들의 조망측정

자료에서 앞의 그림 1에서와 같이 분석을 달리하여 평가차원 변별값(y')과 기술차원 변별값(x')을 산출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평가차원 변별값은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F(3,317)=60.81, $p<.001$].

표 5. 조망수준별 태도대상에 대한 기술값(표준편차)

집 단	태 도 대 상	
	적 발 행 위	목 과 행 위
L L(n=72)	* 3.67(1.53)	2.38(1.63)
L H(n=88)	4.96(1.35)	1.27(1.52)
H L(n=89)	4.06(1.90)	1.83(1.44)
H H(n=72)	5.38(1.16)	.93(1.50)

* 사적이다(0) - 공적이다(6) 척도에서의 평점값

실험 1에서처럼 LL와 HH집단에서 이 값이 적은 반면 LH와 HL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다. 집단을 이렇게 두 집단씩 묶어서 비교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t=12.42$, $df=317$, $p<.001$). 따라서 이 결과는 일정한 조망이 없는 사람이나 양쪽 조망을 모두 가진 사람은 태도가 중립이 된다는 표 4에서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기술차원 변별값도 집단간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317)=168.54, $p<.001$]. LL집단이 가장 적으며 HH집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LH나 HL는 중간 정도의 변별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 간 차이에 대해 5%수준에서 Scheffe' 개별검증을 한 결과 LH와 HL 집단사이의 비교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표 5의 공사차원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조망이 확대되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 주어진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는 변별하지

표 6. 조망수준별 평가차원 변별값과 기술차원 변별값(표준편차)

집 단	변 별 값	
	평 가 차 원	기 술 차 원
L L(n=72)	0.93(0.85)	0.86(0.65)
L H(n=88)	3.18(1.50)	2.54(1.06)
H L(n=89)	2.18(1.57)	2.38(1.14)
H H(n=72)	0.97(0.62)	4.62(1.07)

* 최저변별값(0) ~ 최고변별값(8.485)

못하게 되나 그 대신 이들을 기술차원에서 변별하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종합논의

이 연구는 개인의 태도가 조망때문에 잊어 진다는 전제에서 조망의 확대가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가를 분석하였다. 실험 1과 2의 결과에서 보면 피험자들이 주어진 태도대상을 한쪽 조망에서만 바라볼 때에는 평가적인 조망을 갖기 때문에 태도가 극단적이 되는 반면에 조망이 확대되어 양쪽 조망에서 바라보게 되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 태도가 중립이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 1에서 질서가치에 입각해서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을 판단하는 사람(HL집단)은 교복을 호의적으로 사복을 비호의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개성가치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사람(LH집단)은 사복을 호의적으로 교복을 비호의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망이 확대되어 질서와 개성가치를 동시에 갖고 판단하는 사람(HH집단)은 교복과 사복에 대한 태도가 중립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쪽의 조망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태도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인정조망에서 주어진 태도

대상을 바라보는 피험자들은 교통순경이 친구의 노부모의 교통위반을 보고 적발하는 행위를 나쁘다고 보며 묵과하는 행위를 좋다고 보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공정조망에서 바라보는 피험자들은 적발행위를 좋다고 보며 묵과 행위를 나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정과 공정가치를 동시에 갖고 판단하는 사람은 태도가 중립적이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태도는 그가 주어진 태도대상을 한쪽 조망에서만 바라볼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조망이 확대되어 양쪽 조망을 모두 갖고 바라보게 되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 태도는 중립이 된다.

여기서 평가의 보존은 대립되는 태도대상 예컨대 교복과 사복중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일컫는다. 마치 Piaget(1954)의 양의 보존 실험에서 놀이에 의해서만 양을 규정하던 아동이 놀이와 밀련의 두가지 조망을 동시에 갖고 보게 되면, 놀이가 높고 밀련이 짧은 그릇의 물과 놀이가 낮고 밀련이 넓은 그릇의 물의 양을 동일하게 보는 것과 같다. 이 때 양의 보존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한쪽 조망, 예컨대, 결서가치만을 갖고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 서로 대립되게 보던 사람이 양쪽 조망, 즉 결서와 개성가치를 동시에 갖고 보게되면 교복과 사복을 평가차원에서는 변별을 할 수 없게 되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대상 중에 어느 하나를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 태도의 중립화를 연구한 Linville와 Jones(1980) 및 Judd와 Lusk(1984)의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들은 태도대상에 대한 인지구조가 복잡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보다 그 대상을 중립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여기서 인지구조의 복잡성이란 주어진 개상을 얼마나 다양한 속성차원에서 분화시켜 지각 하는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대상의 속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각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이 된다. 특히 주어진 속성 차원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수록 이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 결과는 주어진 대상을 판단하는 가치차원

이 다양할수록 태도가 중립적이 되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평가의 보존이 일어났다고 해서 대립되는 두 태도대상 교복과 사복을 같게 본다는 것은 아니다.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게 되면 교복과 사복이 평가차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제 기술차원에서 이 양자가 대립되게 나타난다. 이 사실은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조망을 갖고 있지 않은 LI점단과 조망이 확대되어 양쪽 조망을 모두 갖고 있는 HI점단을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두 점단이 모두 주어진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태도만 가지고 본다면 두 점단은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두 점단의 내면적 구조는 매우 다르다. 조망이 없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이 된 점단과 조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이 된 점단은 기술차원의 생성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실험 2에서 일정한 조망이 없는 LI점단은 주어진 태도대상을 나쁘다 — 좋다는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적이다 — 공적이다의 기술차원에서도 변별하지 못한다. 반면에 조망이 확대된 HI점단에서는 주어진 대상들을 평가차원에서는 변별하지 못하지만 기술차원에서는 어떤 다른 점단보다 변별을 잘한다. 따라서 조망이 확대된 점단은 주어진 대상들을 평가차원에서 변별하지 않고 기술차원에서 변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HI점단은 주어진 대상을 판단하는 조망이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태도가 중립이 된 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HI점단은 대상을 판단하는 개인의 조망 자체가 나쁘다 — 좋다는 평가차원에서 사적이다 — 공적이다의 기술차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립 되는 두 행위, 즉 적발행위와 묵과행위가 좋은 것인가 또는 나쁜 것인가를 판단해 주는 조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 이들 행위가 사적인가 또는 공적인가를 판단해 주는 조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조망이 확대되면 조망의 성질 자체가 이렇게 질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조망이 축소된 사람과 조망이 확대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조망이 축소된 사람은 주어진 태도대상을 한쪽 가치에서만 바라 본다. 태도대상 적발행위와 목과행위를 인정 쪽의 가치에서만 또는 공정쪽의 가치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의 가치는 평가차원으로 구성된다. 인정가치는 몰인정하다 — 인정있다 차원으로 이루어지며 공정가치는 불공정하다 — 공정하다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차원은 결국 나쁘다 — 좋다의 평가차원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이들 차원에서 판단되는 태도대상들도 평가적으로 대립시키게 된다. 인정조망에서 보게 되면 몰인정한 적발행위는 나쁘며, 인정 있는 목과행위는 좋은 것이다. 공정조망에서 보게 되면 이와 반대가 된다. 그러나 조망이 확대되어 인정가치와 공정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 적발행위와 목과행위가 평가차원에서는 변별이 안되며 기술차원에서 변별이 된다. 예컨대 이들의 조망차원이 사적이다(인정있다·불공정하다) — 공적이다(공정하다·몰인정하다) 차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대상을 양쪽 가치에서 동시에 보게 되면 적발행위는 공정하지만 몰인정하다. 반면에 목과행위는 인정은 있지만 불공정하다. 이들 두 대상은 모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차원에서는 이들이 변별이 안된다. 그 대신 사적이다 — 공적이다의 기술차원에서 이들이 변별된다. 인정은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사적인 것이며, 공정은 하지만 몰인정한 것은 공적인 것이다. 따라서 조망이 확대되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나면서 개인의 조망이 기술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연히 그 차원에서 판단되는 대상들간의 대립도 기술차원에서 대립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조망이 확대된 집단에서 조망의 성질이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조망이 되는 가치들이 평가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주어진 가치는 평가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인정있으나 몰인정하다는 전자는 긍정적인 것이며 후자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평가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또한 전자는 사적인 것이며 후자는 공적인 것이라는 기술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몰인정하다 — 인정있다 차원은 나쁘다 — 좋다의 평가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지만 또한 공적이다 — 사적이다의 기술차원으로도 환원될 수 있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 공정하다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조망이 축소된 사람들은 몰인정하다 — 인정있다 차원을 나쁘다 — 좋다로도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조망이 확대된 사람들은 이 차원을 공적이다 — 사적이다로만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망의 축소와 확대에 따라 왜 이와같은 차이가 나타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망이 축소된 사람들은 한쪽의 가치차원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의 가치차원, 예컨대 몰인정하다 — 인정있다 차원만 가지고는 기술차원이 생성되지 않는다. 기술차원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가치차원이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몰인정하지만 공정하다와 인정이 있지만 불공정하다가 서로 대립관계에 놓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정가치와 인정가치가 서로 배타적 관계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공정할수록 몰인정해지며 인정이 있을수록 불공정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공정하다는 의미속에는 몰인정하다가 내포되어 있으며, 인정있다는 의미속에는 불공정하다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때 사적이다 — 공적이다의 기술차원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정이나 공정중 어느 하나의 조망만을 갖고 있을 때는 인정과 공정사이의 이같은 배타적 관계를 깨달을 수가 없다. 따라서 몰인정하다 — 인정있다가 나쁘다 — 좋다의 평가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또한 이같이 조망이 확대되어 기술차원이 생성되어야만 태도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바뀌게 된다. 실

험 1에서 HH집단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태도가 선속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LL집단, LH집단, 및 HL집단은 태도가 상황에 따라 비교적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L집단은 HH집단과 마찬가지로 태도가 중립인데도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태도의 변화는 기술차원의 생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HH집단은 태도 대상들을 기술차원에서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은 제복적이며 사복은 비제복적이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제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교복을 선호할 수 있으며, 비제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복을 선호할 수 있다. 즉, 질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교복을 택하고 개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사복을 택할 수 있다. 따라서 태도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된다. 그러나 LL집단에서는 주어진 태도대상의 기술차원에서의 의미를 모른다. 따라서 상황의 요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대상이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태도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없다. 특히 LH집단이 나 HL집단은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대상에 대한 태도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자신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태도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도 개인의 조망이 확대되어 기술차원이 생성된 연후에나 가능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대상을 기술차원에서 변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에 대한 평가적 감정을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조망이 축소되어 주어진 대상을 한 쪽 가치에서만 볼 때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평가차원에서만 가능하며 기술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개인의 조망이 확대되어 평가의 보존이 일어날 때 기술차원에서 판단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술차원에 대한 인식은 평가에서의 보존이 선행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주어진 대상을 기술차원에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에 대한 평가적 감정을 제거

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조망의 확대는 기술차원의 생성에 요건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제가 평가의 보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수원 (1988). 태도에서 감정과 인지성분의 측정. *심리학의 연구문제*(서울대 심리학과), 3, 161-191.
- 이수원, 박영석 (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 차원으로: 태도차원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연구*, 4(1), 155~181.
- 장성수, 이수원 및 정진곤 (1989).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한양대), 인쇄중.
- Judd, C. M., & Lusk, C. M. (1984). Knowledge structures and evaluative judgments: Effects of structural variables on judgmental extre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193-1207.
- Katz, P. A.,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Linville, P. W., & Jones, E. E. (1980). Polarized appraisals of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89-703.
- Piaget, J. (1954).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Tetlock, P. E. (1986). A value pluralism model of ideological reasoning. *Journal of Person-*

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19-827.

韓國心理學會誌：社會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89. Vol.4, No. 2, 33-49

The Expansion of Perspective and the Conservation of Evaluation

Seo Won Lee and Kuang Yup Park

Hanyang University

On the assumption that individual attitude would result from his own perspective,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ansion of perspective on attitude. We hypothesized that the expansion of perspective affects judgmental extremity and leads to nonpolarized evaluative judgments. The first study was a correlational study, measuring the expansion of perspectives and relating them to judgmental extremity. It was found that when one has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by the expansion of perspective, his evaluative judgment became less extreme. The second study measured two contrary opinions on the descriptive dimension and related them to the expansion of perspective. Here we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on with contracted perspective and the person with expanded perspective. The former could not differentiate these opinions on the descriptive dimension but the latter could. In sum, this research found support for the hypotheses that the expansion of perspective leads to nonpolarized evaluative judgments and it also generates the descriptive dimension in the perceived structure of attitude of objects.